

한국 조경의 식수 배식 (韓國 造景의 植樹 配植)

鄭 在 鏞

(海外公報館)

1. 整形式 苑과 自然風景式 苑
2. 韓國 造景 樹種
3. 樹種의 特色
4. 植樹의 配植

1. 정형식 원(整形式 苑)과 자연풍경식 원(自然風景式 苑)

① 정형식(整形式)의 원(苑)

고대(古代) 에집트의 정원(庭園)은 정형식(整形式)이었다. 에집트 테베와 테엘아마르나의 고분(古墳)에서 출토(出土)된 정원도(庭園圖)를 보면 담장에 둘러싸인 장방형(長方形)의 공간 속에 탑문(塔門)이 서있고 네모난 연못이 있으며 대추 야자 무화과 석류, 연꽃, 갈대, 포도 등이 심어져 있다.

그리고 바빌론의 Hanging Garden는 층층이 단(壇)을 지어 나무를 심었던 것이다. 그리스나, 로마의 정원은 중정식(中庭式) 정원과 귀족의 별장에 정형식 정원이 발달하였다. 소위 상록수를 전지하여 조형(造形)하는 topiary 방식이 유행하였다. 구라파의 중세기(中世紀)에는 로마의 Peristylum 같은 회랑식 중정(廻廊式 中庭)이 수도원(修道院) 등에 조성되었다. 이 중정(中庭)은 두 개의 보도가 직각으로 교차되고 교차점 중앙(中央)에 분수나 수반(水盤)이 설치(設置)되고 키가 작은 관목류(灌木類)가 심어졌다. 이태리는 언덕이 많아 로단식(露壇式) 정원이 성행하여 한때는 구라파전역을 휩쓸었다. 구라파의 중세정원에서 주목이나 회양목 등의 상록 관목류(灌木類)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무늬를 조성하는 노트(Knot)라는 조원 솜법이 유행하였다. 11세기 인도는 사라센 민족의 침범으로 사라센정원과(페르샤정원) 인도정원의 결합으로 「캐스미르」 지방의 「니샤트바」 나 「타지마할」 에 정형의 정원이 조성되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조경가 르노트르(Le Notre)는 언덕에 단(壇)을 지워 조성하는 이태리 정형식 조원(造苑)을 평면(平面) 기하학적인 조원으로 만들었다. 프랑스의 「비콩트」 나 「베르사이유 궁전」 「퐁텐블로」 「생클루」 등의 정원이 평면(平面) 기하학적 정원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 정원은 평지(平地)에 원로(園路)를 배치하며 분수 잔디밭 등을 조성한다. 이 평면(平面) 기

하학적 정원에는 회양목과 화초(花草)를 배식하여 만든 자수화단(刺繡花壇)이 있다.

이 르노트르의 평면(平面) 기하학적 정원은 여러 나라에 전파되고 15세기 네델란드에서는 화훼류(花卉類)를 중심으로 한 정형식 화포가 유행되었다. 프랑스의 기하학적 정원은 수km²씩 되는 광대한 평원(平原)에서만 가능하였으며 산이 많고 언덕과 골짜기 있는 곳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정원이다. 이러한 기하학적 정원은 건물이 중심이 되어 정원이 좌우대칭으로 구성된다.

정형식 정원은 18세기 영국(英國)의 자연풍경식 원림(自然風景式 苑林)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서양의 정원 양식이고 이는 건물도 직선의 기하학적 구조이며 수형을 다듬어 조형(造形)을 가하거나 나무를 직선으로 심거나 화목(花木)으로 자수(刺繡)를 놓은 것 같은 무늬를 조성하며 분수, 조각, 길 등이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지극히 인공적(人工的)인 조원(造園)이다.

② 자연풍경식(自然風景式)의 원림(苑林)

자연풍경식(自然風景式)이란 자연(自然)의 아름다움을 조원(造苑)의 기본이상으로 삼는 조경(造景)이다.

한국(韓國), 중국(中國), 일본(日本)의 조원(造苑)이 모두 자연풍경식(自然風景式)이다. 물론 동양(東洋)의 이 세나라는 문화의 교류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中國)의 원(苑)이 한국(韓國)의 원(苑)과 꼭 같든지 일본원(日本苑)이 한국(韓國)의 원(苑)과 꼭 같든지 일본원(日本苑)이 중국(中國)의 원(苑)과 꼭 같다고는 말할 수 없다. 조원(造苑)이란 자연지세(自然地勢), 기후 조성(造成)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中國)의 임원(林苑)이 방대한 규모로 수전(水戰)을 할 수 있는 호수(湖水)나 지세(地勢)를 억누르는 거대(巨大)한 전각(殿閣), 천축석(天竺石)이나 태호석(太湖石)의 큰 석가산(石假山), 의도적으로 만든 조각물(彫刻物)이 임원(林苑) 속에 배치되었는데, 한국(韓國)은 산과 계곡의 좁은 지형(地形)에서, 작은 가산(假山)과 지세(地勢)를 억누르지 아니하고 자연(自然)에 동화(同和)된 사정(榭亭), 적은 지연(池淵), 자연(自然)스러운 괴석(怪石)으로 조원(造苑)을 꾸몄으며 일본(日本)은 한국(韓國)의 조원(造苑)기술을 받아들여 비조(飛鳥), 시대(時代)나 내량(奈良):평안(平安), 겸창(鎌倉), 남북 시대(南北 時代)까지의 원(苑)은 한국(韓國)것과 비슷하고 실정시대(室町時代)(1394~1579)부터는 축경식으로 인공조석(人工組石)과 석정(石庭)과 상록수의 다듬은 조형 등(造形 等)이 나타나 일본적(日本的)인 개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중국(中國)(周)의 고대조원(古代造苑)은 영대(靈臺)라 하여 경치를 조망(眺望)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주(周)의 혜왕(惠王)(BC 671~652)은 신하의 포(圃)를 가지고 유(囿)로 삼았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후한시대 설문해자(後漢時代 說文解字)에 보면 원(園)은 과수(果樹)를 심는 곳, 포(圃)는 채소를 심는 곳, 유(囿)는 금수(禽獸)를 기르는 곳이라 되어 있다. 여기서 중국(中國)의 고대 조경(造景)이란 과수원(果樹園)과 채포(菜圃)와 금수유(禽獸囿)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秦)의 상림원(上林苑)에 BC 212년 아방궁(阿房宮)이 조성되었고 한 무제(漢 武帝)가 BC 138년에 진(秦)의 구원(舊苑)에 새로 조성(造成)한 장안(長安)의 상림원(上林苑)은 대단한 것이어서 70개소(個所)의 이궁(離宮)과 3,000여종의 화목(花木)과 100여종(種)의 금수(禽獸)가 있는 거대한 원유(苑囿)였던 것이다.

한(漢)은 BC 119년에 곤명호(昆明湖)를 위시한 여섯 개의 대호(大湖)를 뚫는데 곤명호(昆明湖) 속에는 건우와 직녀의 석상(石像)과 길이 7m의 돌고래가 호수 속에 조각되어 배치되고 호수의 물을 하늘의 은하수(銀河水)로 상징하였다. 한(漢)의 태액지(太液池)는 영주, 방장, 봉

래의 삼신산(三神山)을 지중(池中)에 조성하였는데 이는 진대(秦代)에 이미 시황제(始皇帝)(BC 246~210)가 난지궁(蘭池宮)에 봉래산을 조성한 사실이 있었다. 한 대(漢代)의 원광한(袁廣漢)이 북산(北山) 밑에 동서(東西) 4리, 남북(南北) 5리의 임원(林苑)을 만들고 원내(苑內)에 격류(激流), 암산(岩山), 지소(池沼)를 조성(造成)하고 흰 앵무새, 자색 원앙새, 검은 들소, 푸른 들소 등을 기르고 기수이초(奇樹異草)를 심었던 사실이 있다.

위진시대(魏晉時代)(AD 220~420)에 기억할 것은 353년 3월 회계의 난정(蘭亭)에서 왕희지 등(王羲之等) 42인이 모여 자연(自然)의 풍광 속에 곡수연(曲水宴)을 한 것이 후대 동양(東洋)의 조경속에 많이 모방되어 조성되었다.

수(隋)나라 양제(煬帝)는 605년 즉위하여 낙양(洛陽)에 거대(巨大)한 원림(苑林)을 조성하고 낙양(洛陽)에서 강도(江都)까지 2,000여리에 아름다운 수림(樹林)을 조성(造成)하고, 원림(苑林)속의 지연(池沿)을 바다같은 호(湖)로 조성하여 수전(水戰)을 연습시키기도 했다.

당(唐)(618~906)의 대표적 원림(苑林)은 여산(驪山)의 온천궁(溫泉宮)이다. 서북 산록(西北山麓)의 원림(苑林)에서 온천이 솟고 장생전(長生殿)을 비롯한 화려한 전각(殿閣)이 서고 현종(玄宗)은 이 이궁(離宮)의 이름을 온천궁에서 화청궁(華清宮)으로 바꾸고 양귀비(楊貴妃)와 더불어 환락의 생활(生活)을 즐겼다. 당(唐)의 장안성(長安城)에 이어져 있는 금원(禁苑)의 동남(東南)에는 대명궁(大明宮)(1957년 발굴되어 전모가 드러남)이 있었는데 여기에 태액지(太液池)가 있다. 이 태액지(太液池)주위의 전각(殿閣)과 원림(苑林)은 대단히 자연(自然)스러운 조화를 이루었다. 당대(唐代)에는 문인(文人) 화가들이 다투어 아름다운 원(苑)을 조성(造成)하였는데 백락천(白樂天)(772~846)의 정원에는 천축석(天竺石), 태호석(太湖石)의 괴석(怪石)이 놓이고 수지(水池), 수목(樹木), 화훼(花卉)가 조화롭게 꾸며졌으며 당시 재상(宰相)이던 이덕유(李德裕)의 원(苑)은 낙양(洛陽) 교외 평천(平泉)에 있었는데 태호석(太湖石), 천축석(天竺石)과 수지(水池)와 가수(佳樹)로서 당대 이름높은 명원(名苑)을 꾸렸던 것이다.

송대(宋代)(960~1279)의 변경경 임원(汴京瓊林苑)은 김명지(金明池)와 마주보고 있었는데 원로(苑路)과 노송(老松), 고백(古柏)이 창창하였고 석류원(石榴園)이나 앵도원(櫻桃園)이 있었다. 북송 말 이격비(北宋末 李格非)의 낙양명원기(洛陽名園記)에 괴석원(怪石園), 노송원(老松園), 장원원(壯圓園), 매화원(梅花園)의 명원(名園) 20여개가 소개되어 있다. 송대(宋代)는 특히 괴석(怪石)을 놓는 것이 당대(唐代)보다 성행하였으며 남송(南宋)(1127~1279)의 덕수궁(德壽宮)속 어원(御苑)은 서호(西湖) 같은 못이 있고 태호석(太湖石)을 알맞게 배치하고 송림(松林), 죽총(竹叢), 연지(蓮池), 장원(壯圓), 매림(梅林), 도림(桃林)이 화려하게 조성(造成)되었다.

금대(金代)는 북경(北京)에 금원(禁苑)을 조성(造成)하여 태액지(太液池)를 파고 경화도(瓊華島)를 만들었으며 이는 원(元), 명(明), 청(淸), 삼대(三代)의 궁원(宮苑)이 되었다. 지금 이 금원(禁苑)은 북해공원(北海公園)이 되어 있다.

명대 문진향(明代 文震亨)(1585~1645)은 장물지(長物志) 12권(卷)과 계성(計成)은 원치(園治) 3권(卷)을 집필하여 중국(中國) 정원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건륭시대(乾隆時代)(1736~1795) 이계(李計)는 양주 화방록(楊洲 畫舫錄) 18권(卷)에 양주(楊洲)의 명원(名園)을 소개하고 있으며 소주(蘇州)는 당(唐)·송(宋)이래 명원(名園)이 많아 소주부지(蘇州府志)에 명대(明代)는 271개소 청대(淸代)는 130개소의 명원(名園)이 있었다한다. 왕원미(王元美)의 졸정원(拙政園)은 중국명원(中國名園)의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으며 청대(淸代)의 이화원(頤和園)은 동양원유(東洋苑囿)의 으뜸으로 세계적 명원(世界的 名苑)의 하나이다.

일본(日本)의 정원은 아스카시대(飛鳥時代)(612~660)의 정원 유적이 아스카천(飛鳥川) 주위에서 계속 부분적으로 발굴(發掘)되고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612년 백제인(百濟人)로 자공(路子工)이 궁궐 남쪽에 수미산(須彌山)과 오교(吳橋)를 놓았다고 되어 있다. 이 유적은 발굴이 되어서 수미산(須彌山)과 석인상(石人像) 등이 출토되고 지소(池沼)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현재 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에 보존되어 있다. 나라시대(奈良時代) 정원 유적 중(遺蹟中) 가장 잘 남아 있었던 것은 1975년 발굴된 내량 평성경좌경3조2방6평(奈良 平城京 左京三條二坊六坪)의 정원 유적이다. 평균폭(平均幅) 15m, 연장 55m에 수면(水面)의 넓은 곳이 5~6m, 좁은 곳이 2m, 물깊이 25~20cm의 곡지(曲池)이다. 못바닥에는 냇들을 곱게 짜서 깔았다. 그리고 주위에 차경의 방형(方形) 울타리를 했던 터가 발굴되었다. 못 가까이 건물지(建物址)가 있는데 이 못을 곡수연(曲水宴)을 하던 유적으로 보고 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785~1180) 전기 하원원(河原院)의 정원은 오주 염부송도(奥州 鹽釜 松島)의 경관을 본떠서 못속에 섬을 만들고 소나무를 울창하게 심고 소금 굽는 연기가 나게 조성했다 한다. 평안(平安)후기는 조우이궁(鳥羽離宮)의 원지(苑池)에 창해도(滄海島)와 봉채산(蓬萊山)이 축조된 듯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특히 정토사상(淨土思想)이 사찰(寺刹)의 정원에 조영되었던 모월사(毛越寺)의 대천지(大泉池)는 당대의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는 명원(名苑)이다.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1181~1335)는 헤이안시대(平安時代)의 문화적 계승이었다. 계속 황족이 있는 경도(京都) 저택이나 궁의 정원은 헤이안(平安)후기를 답습하고 있다. 사찰에는 선종사원(禪宗寺院)의 정원이 조성되어 절의 배치가 남문(南門)→홍교(虹橋)→중도(中島)→평교(平橋)→금당(金堂)으로 연결되는 직선상에 좌우로 구성되었다.

남북시대(南北時代)(1338~1393)의 대표적 원(苑)은 서방사(西方寺)의 정원과 천룡사(天龍寺)의 정원이다. 서방사(西方寺)의 정원을 조성한 몽창국사(夢窓國師)는 당대 정원의 대가였다. 서방사(西方寺)의 정원축조는 벽암록(碧巖錄)의 내용에 암시를 얻어 류리진 호남정(瑠璃殿 湖南亭)의 건물을 못가에 세우고 황금지(黃金池)를 돌려놓고 백앵(白櫻), 취죽(翠竹)의 두 섬을 만들고 요월교(邀月橋)로 섬을 연결하여 선원(禪院)의 세계를 재현했다. 천룡사(天龍寺)는 귀산전 유지(龜山殿 遺址)에 조영된 조원지(曹源池)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수입구(水入口)에 폭포 및 석교(石橋)를 놓고 못가에 바닷가의 암석으로 해변의 경관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1394~1579) 초기는 룩원사(鹿苑寺)(금각사(金閣寺))의 정원과 자조사(慈照寺)(은각사(銀閣寺)) 정원이 조성되었다. 말기에는 소규모의 정원이 조성되고 석정(石庭), 고산수(枯山水) 정원이 나타난다. 일목일석(一木一石)에 고도의 세련미를 나타내고 경관의 상징화, 추상화로 축경식 정원이 되어 인공조석(人工組石)이 강하게 강조된다. 상록수의 나무를 다듬어서 바위 사이에 심고 전지를 해서 조형을 가꾸며 돌이나 모래를 가지고 바다나 계류(溪流)를 표현(表現)하기도 한다. 이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정원의 대표적인 작품이 교토(京都)에 있는 대선원(大仙院)의 정원(1513)인데 20평(坪) 남짓한 공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원산(遠山)의 암반과 백사(白砂)로 급류(急流)를 표현(表現)하고 자연석(自然石)으로 교(橋), 언덕, 선(船)을 배치하였다. 교토(京都)의 용안사 석정(龍安寺 石庭)(1499)은 한포기 나무가 없고 하이얀 자갈의 잔잔한 평면(平面)에 돌 15개(個)로 2.2.3.3.5의 5조(組) 치석(置石)으로, 대해(大海)의 섬, 운해(雲海)의 산정(山頂) 또는 십육라한(十六羅漢)으로도 보이게 하였다.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1582~1602)의 정원은 도요토미히대요시(豊臣秀吉)이가 축조한 제호사 삼보원 정원(醍醐寺 三寶院 庭園)과 도쿠가와씨(德川氏)의 교토 이조성(京都 二條城) 정원이다. 호화로운 조석(組石)과 고르고 고른 명목(名木)과 폭포, 석교 지소(石橋 池沼)가 배치되었는데 자연미(自然美)를 인공적(人工的)으로 조작하여 과장된 맛을 준다. 이 시대에 차실

(茶室)의 노지(路地)에 대한 조경 수법이 발달되면서 석등(石燈), 석탑(石塔)이 정원 속에 배치되게 되었다. 이 시대는 나라시대(奈良時代)의 복고적 경향이 나타났다. 에도시대(江戸時代)(1604~1868)는 일본(日本) 정원사에 또 한번의 황금시대(黃金時代)를 열었다. 등원시대 복고정신(藤原時代 復古精神)과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의 화려한 정원과 다정(茶庭)의 자연(自然)스러운 정원의 혼합으로 조성된 동경(東京)의 소석천 후락원(小石川 後樂園), 교토(京都)의 지인친왕(智仁親王)의 계리궁(桂離宮), 후수미상황(後水尾上皇)의 수학원리궁(修學院離宮) 등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제후(諸侯)의 거성(居城)이나 저택에 많은 정원이 꾸며졌다. 에도성(江戸城) 안의 취상어화(吹上御花), 빈어전(浜御殿)뒤의 육의원(六義園)등을 볼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지중(池中)에 삼신도(三神島)가 조성되는데 이 삼신도(三神島)에는 꼭 소나무가 서 있다. 그리고 양석(陽石), 음석(陰石)의 치석(置石)이 유행하고 석등, 수수분(手水盆)등 석물이 정원에 꼭 배치되었다.

영국(英國)은 18세기가 되면 자연풍경식 임원(自然風景式 林苑)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태리나 프랑스의 인공적 정형식 정원에서 자연(自然)의 아름다움을 찾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자연풍경식(自然風景式) 조경가는 버킹검의 Stow 원림(苑林)을 설계한 브리덴(Brideman)이나 켄트(Kent), 브라운(Lancelot Brown)이다. 그러나 1772년 윌리엄 챔버(Sir William Chambers)는 「동양정원론(東洋庭園論)」(Dissertation on Oriental Gardening)을 저술 간행하여 중국(中國) 정원을 영국에 소개하였다.

챔버는 1758년에 큐 가아든(Kew Garden)의 축조를 맡아 중국식 건물과 탑(塔)을 세웠으며 동양의 낙망적인 조경양식을 영국 풍경식에 가미하였다.

영국 풍경식 정원을 가장 많이 만든 사람은 레프턴이다. 그는 Land Scape Style in Naturalism을 English Landscape Style라 부르게 만들었다. 이 자연주의 풍경식 정원은 자연(自然)으로 돌아가라고 부르짖던 루소의 사상과 함께 프랑스에 전파되어 프티 트리안옹(Petit Trianon)과 에른논빌(Ermenonville), 말메이손(Malmaison)등 명원(名苑)이 조성되었다.

독일은 히르시펠트(Christian Hirschfeld)가 「정원예술론(庭園藝術論)」을 쓰고 영국식 정원을 받아드려서 독일의 과학적인 입장으로 발전시켜 식물생태학(植物生態學)과 식물지리학(植物地理學)에 근거를 두고, 자연경관의 재생(再生)에 중점을 두었다.

19세기 정원에서는 정형식과 자연풍경식의 절충이 일어났고, 이때 특히 크게 대두된 것은 공원(公園)이다. 영국의 하이드 파크(Hyde Park), 그린파크(Green Park), 세인트 제임스파크, 리젠트 파아크 등이며 프랑스에서 파리 세느강 왼쪽 연안에 샹제리제(Champs Elysees), 팔레스 로얄(Palais Royal), 파르크 몽소(Parc Monceau), 라드랭 드 프랑트(Jardin des Plantes), 룩상 부르크(Luxembourg)가 잘 조성되었다.

1854년 미국(美國)의 올메데스(Fredric Law Olmsted)는 뉴욕시 중앙부에 자연 풍경식 정원인 센추럴 파크(Central Park)를 조성하였다.

한국(韓國)의 조원(造苑)은 중국(中國)이나 일본(日本)에 비하여 더욱 자연풍경식 원(自然風景式 苑)이었다. 중국(中國)처럼 자연(自然)을 억압하지도 않고 일본(日本)처럼 자연(自然)을 축소 인공화(人工化)하지도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단군신화(檀君神話) 속에 나오는 단목하신시(檀木下 神市)에는 하늘에 천제(天祭)를 지내는 단(壇)이 있었을 것인데 이 단(壇)은 산상(山上)으로 중국 주대(中國 周代)의 영(靈)·대(臺)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삼국시대(三國時代)는 조원(造苑)의 기술이 발달된 것은 백제(百濟)이다. 물론(勿論) 삼국(三國)이 다 궁(宮)을 지을 때는 궁(宮)에 따른 원림(苑林)이 조성(造成)되는 것은 필연의 사실이다.

백제 진사왕(百濟 辰斯王) 7年(391) 궁실(宮室)을 수리(修理)하고 못을 파고 가산(假山)을 쌓아 진기한 짐승을 길고 기화요초(琪花瑤草)를 가꾸었다.

또 동성왕(東城王) 22年(500)에는 임류각(臨流閣)을 짓고 못을 파고 기인한 짐승을 길렀다.

무왕(武王) 35年(634)에는 왕흥사(王興寺)에 화려한 사원(寺苑)을 만들고 또 궁남(宮南)에 못을 파서 이십(二十)여리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못가에 버들을 심고 못가운데 방장선산(方丈仙山)을 모방한 섬을 축조하였다. 이어 무왕(武王) 37年(636)에는 사차하(泗泚河), 북포(北浦) 양언덕에 기암괴석(奇巖怪石)을 착립(錯立)하고 기화이초(奇花異草)를 심어 그림같이 만들었다.

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기록인데 백제(百濟)는 한성시대(漢城時代), 공주시대(公州時代), 부여시대(扶餘時代)의 궁(宮)에 화려한 원유(苑圃)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물(遺物)인 백제(百濟)의 석연지(石蓮池)는 연(蓮)을 기르던 석물(石物)이다.

고구려(高句麗)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에 보이는 능묘(陵墓)에 송백(松柏)을 울창하게 심었던 것이다. 근년(近年)에 발굴한 평양 대성산 밑에 있는 안학궁지(安鶴宮址)에서는 원유(苑圃)의 유적이 드러났다. 안학궁(安鶴宮)은 양원왕(陽原王) 7年(551)에 장안성(長安城)을 축조할 때 건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은 한변이 620m가 되는 장방형(長方形)의 궁성(宮城)이 둘러쳐 있고 동(東), 서(西), 북(北)에 성문(城門)이 하나씩 있고 남(南)쪽에는 3개의 성문(城門)이 있으며 궁성내에는 총건평 31,458㎡의 건물지(建物址)가 드러났는데 52개(個)의 건물이 남궁(南宮), 중궁(中宮), 북궁(北宮), 동궁(東宮), 서궁(西宮)의 5개(個) 건물군(建物群)으로 배치되었다. 궁(宮)의 남북 중심(南北 中心) 축선 상에는 남궁(南宮), 중궁(中宮), 북궁(北宮)이 회랑에 둘러쌓여 배치되고 동(東)에 동궁(東宮), 서(西)에 서궁(西宮)이 배치되었다. 여기서 남궁(南宮) 서쪽에는 큰 규모의 조산(造山)과 원유(苑圃)가 있었고 남궁 동남(南宮 東南) 모서리에 거대(巨大)한 원지(苑池)가 있었다. 이 원지(苑池)는 성북벽(城北壁)을 관류(貫流)하는 물줄기가 못으로 흘러들어 남류(南流)하여 성밖으로 흘러나가는 수구(水口)가 설치되었다. 북궁(北宮)의 후원(後苑)에도 가산(假山)의 원(苑)이 있었다. 성 남문(城南門)에서 남궁(南宮)의 회랑 남문까지 사이는 넓은 원림(苑林)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성 동문(城東門), 서문(西門), 북문(北門) 내가 모두 넓은 원림(苑林)의 터로 나타났다. 남궁(南宮)의 건물(建物) 동서(東西) 길이가 280m나 되고 남궁 정전(南宮 政殿)은 정면(正面) 11間 측면(側面) 5間的 건물(建物)인데 건물 기단은 진흙과 자갈을 섞어서 단진 판축이다. 이 궁전들은 남궁(南宮)이 정전(政殿)이고 중궁(中宮)이 내전(內殿)이며 북궁(北宮)이 침전이며 서궁(西宮)이 편전이고 동궁(東宮)은 태자(太子)의 궁(宮)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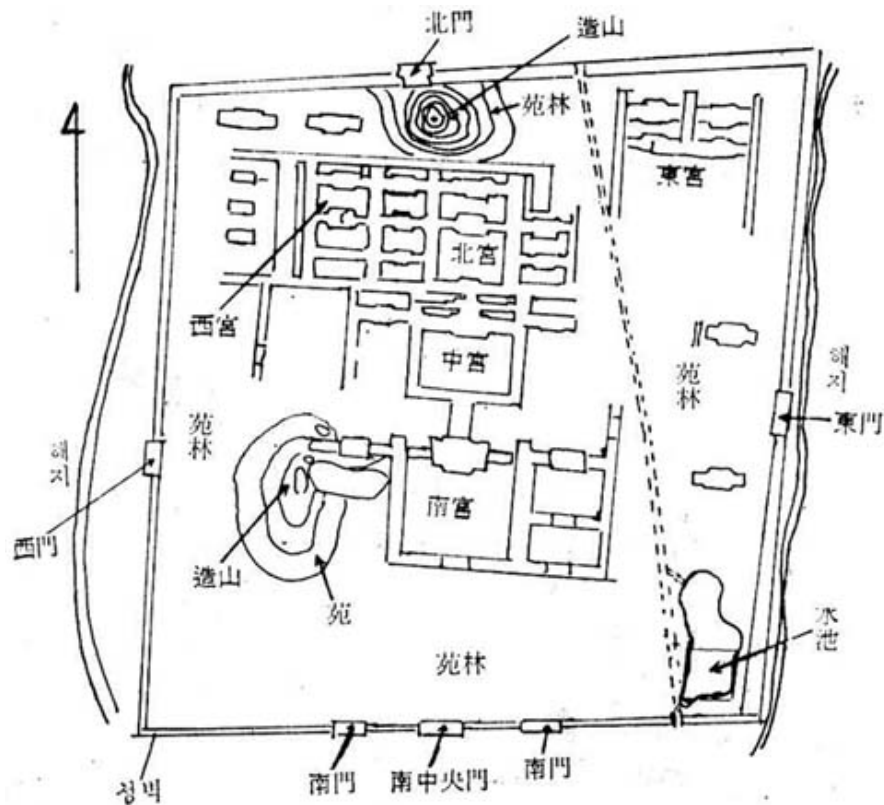


圖 1. 高句麗 安鶴宮址 平面圖

圖1. 고구려 안학궁지 평면도(高句麗 安鶴宮址 平面圖)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 유리왕(高句麗 琉璃王) 22年(AD 3)條에 보면 대보(大輔)의 직(職)에 있던 협부(陝父)가 왕(王)에게 국도(國都)를 옮겨 백성들이 안도(安堵)치 못하니 정법(政法)에 맘을 부지런히 쓰실 일인데 이는 생각지 않고 사냥이나 하여 왕(王)이 오래도록 돌아 오지 아니하니 정치가 문란하고 백성이 흩어져 선왕(先王)의 업(業)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된다고 간하였는데, 왕은 진노하여 협부(陝父)에게 벼슬을 파(罷)하고 궁원(宮園)의 일을 맡겼다. 협부(陝父)가 분개하여 남한(南韓)으로 도망하였다. 이를 보면 고구려에 정원을 관리하는 직책이 초기부터 있었으며 이는 낮은 관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신라(古新羅)의 기록에서 단편적인 조원(造苑)의 기록이 보이지만 본격적인 기록이나 유적(遺蹟)은 아직 조사(調查)되지 못했다. 이는 경주 월성(慶州 月城)의 발굴조사(發掘調查)등이 이룩되면 고신라(古新羅) 정원유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통일신라(統一新羅)의 조원유적(造苑遺蹟)으로는 674년에 조성(造成)된 신라동궁(新羅東宮)의 원지(苑池)인 안압지(雁鴨池)와 8세기 불국사(佛國寺)의 구품연지(九品蓮池), 경주남산(慶州南山)의 포석정지등(鮑石亭址等)이다. 안압지(雁鴨池)는 동서(東西) 190m, 남북(南北) 190m의 면적내에 4,738평(坪)의 지소(池沼)를 만들고 東쪽과 北쪽 못가에는 무산(巫山)12봉(峰)을 조산(造山)하고 西쪽과 南쪽에는 전각(殿閣)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못가운데는 삼신산(三神山)의 세섬이 축조되었고 못의 東, 南 모퉁이에 물을 넣는 수입(水入)시설의 석구(石構)가 있고 물이 계간을 돌아 폭포로 떨어져 들어가게 되어 있다. 수출구(水出口)는 수면(水面)을 조정하게 되어 있었다. 못가

에는 괴석(怪石)을 배치하였고 지안(池岸)은 다듬은 돌로 쌓았다. 기록에 의하면 기화이초(奇花異草)와 진기(珍奇)한 금수(禽獸)를 길렀던 곳이다. 그리고 못 속에서는 뱃놀이를 했다. 신라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 원유(苑囿)의 유적에서 신라의 원(苑)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엿볼 수 있다. 포석정(鮑石亭)은 곡수연(曲水宴)을 하던 곳이며 불국사(佛國寺)는 구품연지(九品蓮池)를 조성하여 하나의 정토정원(淨土庭園)을 잘 보여주었다. 이 신라의 정원문화는 일본(日本)의 정원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해(渤海)는 698년에 흑룡강가의 동모산에 나라를 세워 756년에 상경용천부로 옮겼다. 이 상경용천부는 흑룡강선 녕안현 동경성에 있다. 이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의 도성유적(都城遺蹟)을 보면 주위 수백리분지의 평원(平原)에 자리잡았는데 도성(都城) 남쪽에 경박호가 있으며 이 호에서 흐르는 목단강은 성의 남쪽과 북쪽으로 감돌아 흐른다. 성의 둘레가 16,296m 남북(南北)이 약간 긴 장방형(長方形)으로 되어있다. 성은 외성(外城), 궁성(宮城), 황성(皇城)으로 되어 있는데 외성(外城)은 성벽에 붙여서 해자를 뚫고 東, 西 벽에는 각각 2개씩의 성문(城門)이 있고 南, 北 두 벽에는 각각 3개씩의 성문(城門)이 있다. 그리고 南쪽 성벽의 중앙문(中央門)에 직선으로 뻗은 길의 폭이 110m나 된다. 이 길을 중심으로 동반성, 서반성으로 나뉘어지고 대칭되는 십자로 연결된 길이 사방에 뻗어있어 바둑판 같은 도시구역을 하고 있다.



圖2. 상경용천부 발해궁성 평면도(上京龍泉府 渤海宮城 平面圖)

궁성(宮城)은 장방형 성(長方形 城)으로 둘레가 약 4km이다. 궁성(宮城) 남벽에는 웅장한 문지(門址)가 있으며 궁성(宮城)내에는 중앙구역을 중심(中心)으로 東, 西, 北 구역의 4개구역으로 나누워 졌는데 중심(中心)구역에는 장엄한 궁전건물지(宮殿建物址)가 있고 북쪽과 西쪽 구역에는 부속시설이 있고 원림(苑林)이 조성되었던 것이며 특히 동쪽 구역에는 큰 연못과 조산(造山), 팔각정과 못속에 섬이 있었고 못주위 넓은 공간은 원림(苑林)이 되어 있었다. 궁성남쪽의 황성은 궁성의 성벽과 같이 쌓았고 황성에는 동, 남, 서에 성문(城門)이 있고 중구(中區), 서구(西區), 동구(東區)로 나누워졌다. 중구(中區)는 궁성의 앞 광장이 되고 동구(東區)와 서구(西區)에는 발해의 관청인 3성6부(三省六部)가 있었다. 이 궁성과 황성에는 녹유로 이은 청기와 집이 가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외성(外城)내의 이방(里坊)에는 평민(平民)들이 살았다. 성내(城內)의 부자들은 집에 모란꽃을 많이 심었다는 기록이 발해국지 장편십칠(渤海國志 長編 十七), 식대지(食貨志)에 실려 있다.

고려(高麗)는 919年 개성에 도읍하여 궁성(宮城)은 풍수설(風水說)에 의하여 터잡아졌다. 송악(松岳)을 주산(主山)으로 한 자연지대(自然地帶)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경종(景宗) 2年(977) 왕(王)이 동지(東池)에 용선(龍船)을 타고 친히 진사(進士)의 시험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고 정종(靖宗) 4年(1038) 동지(東池)에 백학과 거위와 산양류를 기르는데 그 사육비가 많이 드는 기록이 있다.

목종(穆宗)은 1002年에 궁내(宮內)에 못을 파고 높은 대(臺)를 축조(築造)하여 유상(遊賞)의 자리로 하였다. 문종(文宗) 24年에는 연경궁 후원 상춘정(延慶宮 後苑 賞春亭)에서 곡수연(曲水宴)을 하였다. 이 상춘정(賞春亭)에는 봄에 모란(牡丹), 작약(芍藥) 가을에 국화(菊花)가 만발하였다.

예종시대(睿宗時代)는 많은 원유(苑圃)가 이룩되고 화원(花園)이 조성되었으며 청연각(請讌閣), 보문각(寶文閣), 주위는 석가산(石假山), 천수수림(泉水樹林) 등으로 유현(幽玄)한 공간을 조성시켰다.

의종시대(毅宗時代)에도 수창궁 북원(壽昌宮 北園)에 괴석(怪石)의 석가산(石假山)을 만들고 선구보(善救寶), 양성정(養性亭) 주위에 화훼(花卉)가 많았고 또 민가 오십여구(五十餘區)를 뜯어내고 정자(亭子)를 짓고 명화이과(名花異果)를 심고 못을 파고 괴석(怪石)으로 선산(仙山)을 조산(造山)하였다.

충렬왕(忠烈王)때(1297) 수녕궁(壽寧宮)의 향각(香閣) 옆에 작약(芍藥)이 만발한 기록이 있으며 공민왕(恭愍王)도 팔각전(八角殿)을 짓고 주위에 화목(花木)을 심어 유연(遊宴)하였다. 고려시대 귀족의 저택에도 많은 원림(苑林)이 조성되고 화원(花苑)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고려원(苑)의 유적조사(遺蹟調査)가 없어서 유적을 알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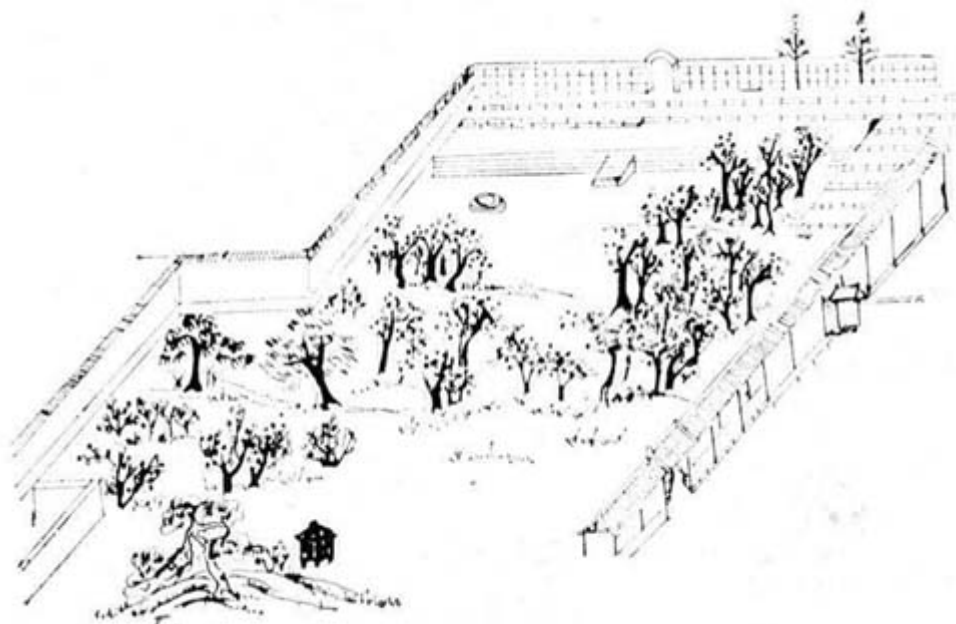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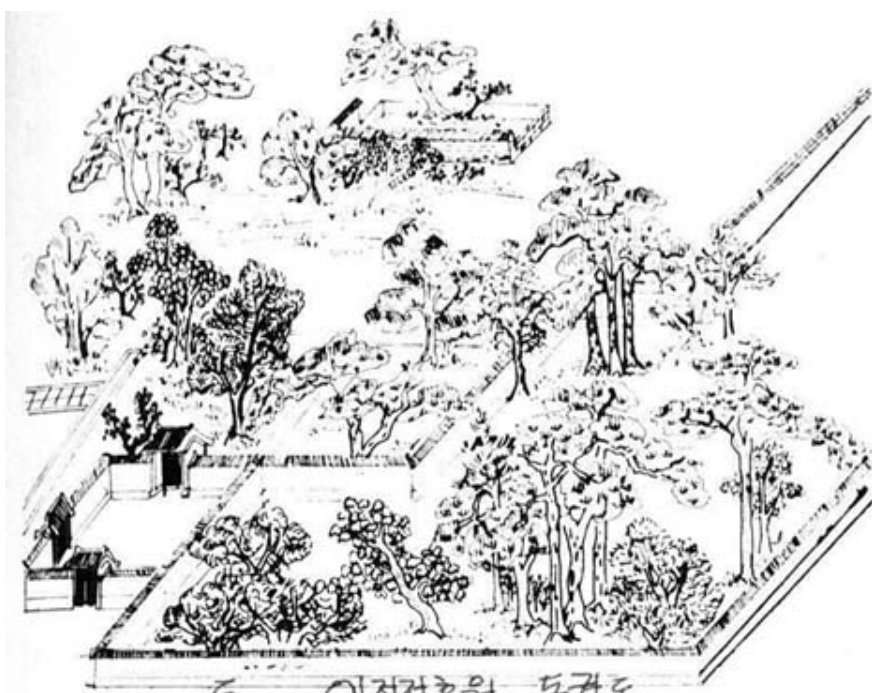


圖3. 昌慶宮에 있던 花園 東關圖에서

圖3. 창경궁(昌慶宮)에 있던 화원(花園) 동궐도(東關圖)에서



도 인정전후원 동궐도
圖 4. 仁政殿後苑 東關圖에서

圖4. 인정전후원(仁政殿後苑) 동궐도(東關圖)에서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궁(宮)의 원유(苑圃)로서 경복궁(景福宮)과 창덕궁(昌德宮)의 원유(苑圃)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경복궁(景福宮)에서는 조선시대 방형지(朝鮮時代 方形池)인 경회루의 연못과 향원정 및 교태전 후원의 화담 굴뚝과 정원의 기물(器物)인 석지(石池)나 석대를 볼 수 있다. 창덕궁(昌德宮) 후원은 그 원림(苑林)의 자연(自然)스러운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 조원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명원이다. 이는 동양(東洋)의 원유중(苑圃中)에 지보적(至寶的) 유적이다. 심산유곡의 원시림(原始林) 같은 원림(苑林)과 갖가지 형태의 정자(亭子), 계곡에 조화된 방지(方池), 괴석 보도(怪石 步道), 석교(石橋), 소계(小溪), 천정(泉井)등이 자연(自然) 속에 동화(同和)되어 한국 원(苑)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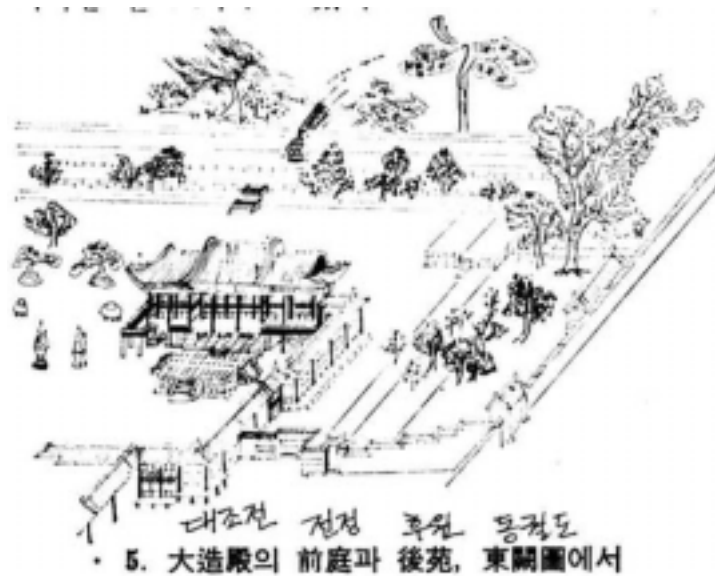


圖5. 대조전(大造殿)의 전정(前庭)과 후원(後苑), 동궐도(東闕圖)에서



圖6. 창경궁(昌慶宮) 자경전 후원(慈慶殿 後苑), 동궐도(東闕圖)에서

민가(民家) 정원으로서는 윤선도의 보길도, 원림(苑林)유적과 양산보(梁山甫)의 소쇄원, 수원성의 상남지(上南池)와 하남지(下南池), 도산서원(陶山書院), 옥산서원 등(玉山書院 等)의 서원(書院)의 원림(苑林)과 강능 선교장(船橋莊)의 장원(莊苑)과 선비의 독서지소(讀書之所)이던 우복선생(愚伏先生)의 산장(山莊) 관아의 원(苑)이던 남원(南原)의 광한루 등은 조선시대(時代) 원(苑)의 자연적(自然的)인 풍치를 간직하고 있는 유적(遺蹟)들이다.

2. 한국 조경 수종(韓國 造景 樹種)

문적(文蹟)이나 유적(遺蹟)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조원(造苑)에 나타나는 식물의 종류를 살펴본다.

① 괴(槐) : 사기(史記)를 보면 백제 다루왕(百濟 多婁王) 21年(48) 춘이월 궁중(春二月 宮中)에 대괴(大槐)가 말라 죽었고 의자왕(義慈王) 19年(659) 궁중(宮中)의 괴목(槐木)이 사람의 곡성(哭聲)과 같이 울었다. 이는 백제(百濟) 초기의 한성시대 궁(漢城時代宮)과 말기의 부여시대 궁(扶餘時代 宮)에 이르기까지 궁원(宮苑)에 괴수(槐樹)가 심어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新羅)의 기록은 벌휴니사금(伐休尼師今) 13年 4月 우뢰가 궁남(宮南)의 대수(大樹)와 금성(金城)의 동문(東門)을 쳤고, 흘해니사금(訖解尼師今) 35年(344) 4月 태풍이 불어 궁남(宮南) 쪽에 있는 대수(大樹)가 뽑혀 쓰러졌다. 궁림(宮林)에 심어졌던 대수(大樹)는 괴목(槐木)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신라궁(新羅宮)의 원림(苑林)이던 계림(鷄林)에 괴목(槐木)과 왕버들이 주종(主種)을 이루는 숲이며 중국 주대(中國 周代)부터 궁(宮)의 문정(門庭)에는 괴수(槐樹)를 심었다. 그래서 왕궁(王宮)을 괴신(槐宸)이라 하기도 한다. 이는 고려(高麗) 조선(朝鮮)의 시대(時代)에도 궁(宮)의 상징적 나무가 느티나무와 회화나무였다. 지금 창덕궁(昌德宮) 돈화문 내정이나 경복궁 신무문 내정(景福宮 神武門 內庭)에 괴(槐)가 울창하게 서 있다. 괴목(槐木)이란 느티나무와 회화나무를 일컫는 것이다.

② 유(柳) : 신라 내해왕(新羅 奈解王) 3年(198) 4月 시조묘(始祖廟)앞에 있는 버드나무가 쓰러졌다가 저절로 일어났고 첨해왕(沾解王) 7年(253) 금성남(金城南)에 있는 쓰러진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났다.

백제 무왕(百濟 武王) 35年(634) 3月 궁남(宮南)에 원지(苑池)를 파고 사방(四方)에 버들을 심고 지중(池中)에 방장선산(方丈仙山)의 섬을 만들었다. 유사 혜통강용조(遺事 惠通降龍條)에 신문왕(神文王)이 죽어 산릉(山陵)을 닦고 장로(葬路)를 만들 때 정공(鄭恭)집 버드나무가 걸리어 이를 베고자 했는데 정공이 노하여 자기목을 벨지언정 버드나무를 못베게 하였다. 왕(王)이 노하여 정공의 목을 베고 집을 헐어버렸다. 이 기록에서 보면 궁(宮)이나 묘(廟), 대가(大家)의 집 원림(苑林)에 버드나무가 있었던 것이다. 버들은 동양(東洋)의 원(苑)에 가장 많이 심어졌던 조경수(造景樹) 속의 하나이며 고려(高麗)나 조선시대(時代) 궁원(宮苑)에 많이 심어졌고 도자기(陶磁器)나 청동 정병 등에 새겨지기도 하였다.

③ 이(梨) : 사기(史記) 고구려(高句麗) 양원왕(陽原王) 2年(546) 2月에 왕도(王都)에 이수(梨樹)가 가득히 연(連)하였고, 유사 신라 혜공왕(遺事 新羅 惠恭王) 2年(766) 7月에 각간 대공(角干 大恭)의 집 배나무 위에서 참새가 수 없이 모이었다는 기록과, 유사 보양이목조(遺事 寶壤梨木條)에서 보양(寶壤)스님의 이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청도 운문사(淸道 雲門寺)에 있던 보양(寶壤)스님이 날이 가물어 야채가 다 타고 말라서 운문사

(雲門寺) 절 옆 언뿔속에 사는 리목(璃目)(이무기)에게 명하여 비를 오게 하였는데 천제(天帝)가 이 이무기를 내놓으라 하니 보양(寶壤)스님은 절 마당에 서있는 배나무를 이무기라고 가리켰다. 벼락이 배나무를 치고 올라갔는데 이로 인해 배나무가 꺾이었다. 용(龍)이 와서 이 배나무를 소생시켰다는 이야기다. 보양(寶壤)스님은 신라말 고려초(新羅末 高麗初)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기록을 보면 배나무는 고구려의 왕도(王都)에 가득히 심었던 것이며 신라의 귀족가(貴族家)의 정원에 심었고 사찰의 경내에도 심었던 중요(重要)한 나무다. 조선시대 정궁(朝鮮時代 正宮)인 경복궁(景福宮) 내에도 오래된 배나무들이 향원지 가에 이주(二柱), 교태전(交泰殿)의 후원(後苑)인 아미산에 이주(二柱), 건춘문 내원(建春門 內苑)에 일주(一柱)가 있고 창덕궁 대조전(昌德宮 大造殿) 西편 후원(後苑)에도 몇주가 서 있다. 오래된 민가(民家)의 후원(後苑)이나 사찰(寺刹)의 원(苑)속에 이목(梨木)은 많이 볼 수 있다.

④ 백(柏) : 유사 신충괘관조(遺事 信忠掛冠條)에 신라 효성왕(新羅 孝成王)이 아직 왕(王)이 되기전 현사 충신(賢士 忠信)과 더불어 궁정(宮庭)의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었다.

그리고 찬기자랑가중(讚著姿郎歌中)에 「잣(柏) 가지 높아 서리 모를 화판(花判)이여」라 했다.

이를 보면 잣나무는 궁원(宮苑)속에 심어져 있었고 화랑(花郎)의 높고 높은 기개를 상징하는 문학적 비유로서도 잣나무를 상징했다.

⑤ 모란(牡丹) : 사기 선덕왕조(史記 善德王條)에 진평왕(眞平王)때 당(唐)나라에서 얻어온 모란(牡丹)꽃의 그림과 종자를 보고 선덕여왕(善德女王)이 말하기를 「꽃은 아름다우나 향기(香氣)가 없으리라」 하였다. 진평왕(眞平王)이 웃으며 말하되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 선덕여왕(善德女王)이 답하기를 「그림에 봉접(蜂蝶)이 없는 때문에 압니다. 대개 여자(女子)로서 국색(國色)이면 남자(男子)들이 따르고, 꽃으로서 향기(香氣)가 있으면 봉접(蜂蝶)이 따라 다니는 까닭이라 했다.」 모란 종자(種子)를 심어보니 과연 선덕여왕(善德女王)말과 같았다.

유사 선덕왕 지기삼사(遺事 善德王 知幾三事)에는 당태종(唐太宗)이 홍(紅), 자(紫), 백(白)의 모란그림과 그 씨 삼승(三升)을 보내왔고 이를 뜰에 심었다고 되어 있다. 이 사실은 당태종(唐太宗)이 즉위한 627년부터 진평왕(眞平王)이 죽은 631년 사이의 일이다. 이제까지는 신라에 모란이 없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신라에 모란꽃이 심어졌던 것이다. 당시 들어온 모란꽃은 홍(紅), 자(紫), 백(白)의 세 종류로 보인다.

⑥ 매(梅) : 사기 고구려 대무신왕(史記 高句麗 大武神王) 24年(41) 7월에 서리가 내리고 8월에 매화(梅花)가 피었다. 이 기사는 8월에 매화가 핀 이변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미 정중(庭中)에 매화(梅花)를 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⑦ 도(桃)와 이(李) : 사기 백제 온조왕(史記 百濟 溫祚王) 3年(BC 16) 10월에 도이(桃李)가 피었고, 신라 파사니사금(新羅 婆娑尼師今) 23年(102) 10월에 도이(桃李)가 피었다. 내해니사금(奈解尼師今) 8年(203), 10월에 도이(桃李)가 꽃을 피었다. 경덕왕(景德王) 22年(763) 8월 도이(桃李)가 두 번째 꽃을 피었다. 흥덕왕(興德王) 8年(833) 10월에 도이(桃李)가 꽃을 피었다. 경문왕(景文王) 3年(863) 10월에 도이(桃李)가 꽃을 피었다. 고구려 안원왕(高句麗 安原王) 10年(540) 10월에 도이(桃李)가 꽃을 피었다. 이 기록에서 보면 삼국(三國)이 모두 복숭아 꽃과 오얏꽃을 심었던 것이다.

이들 나무는 꽃도 좋고 열매도 맛이 있어 많이 심었던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은 계절의 기온에 이변이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복숭아 꽃과 자두꽃이 모두 10월에 핀 것을

말하고 있다.

무려 7차의 기록이 보이는데 일관(日官)이 일기를 측정하는데 원림(苑林)에 있는 복숭아와 오얏(자두)이 계절의 이변을 기록하는 기준의 화목(花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옛날 기후가 음력 10월에 복숭아나 오얏꽃이 자주 피는 따뜻한 날씨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기도 하다.

⑧ 송(松) : 사기(史記)에 신라 애장왕(新羅 哀莊王) 2년(801) 10월에 송죽(松竹)이 얼어죽었고 열전 최치원조(列傳 崔致遠條)에 최치원(崔致遠)이 난세(亂世)를 만나 행세(行世)하기가 어렵고 곤란하여 불우함을 한탄하면서 벼슬을 그만두고 산림하(山林下)와 강해빈(江海濱)으로 소요하며 방랑할 때 사대(臺臺)를 지어 송(松), 죽(竹)을 심고 책을 벼개 삼아 풍월(風月)을 읊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최치원선생(崔致遠先生)의 식수(植樹)유적으로는 경남 함양읍 대덕리(咸陽邑 大德里)에 있는 상림(上林)이 제일인데 64,267坪에 인공(人工)의 풍치림(風致林)을 이루고 있어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第154號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파관집(破閑集)에 보면 강릉의 한송정(寒松亭)은 신라(新羅)때의 사선(四仙)인 영랑(永郎), 술랑(述郎), 남석(南石), 안상(安祥)등 그 무리 삼천(三千)이 소나무 한주씩 심어 지금 이렇게 울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中國 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에 보면 고구려(高句麗)의 후장(厚葬)하는 관습 및 적석위봉(積石爲封)한 묘(墓)에 열종 송백(列種 松柏)하였다 하였으니 능묘(陵墓)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가득히 심었던 것이며 지금 평양(平壤)의 동명왕릉 송림(東明王陵 松林)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유사 김유신조(遺事 金庾信條)에 보면 재매부인(財買夫人)이 죽어 청연상곡(靑淵上谷)에 장사지내고 재매곡(財買谷)이라 하였다. 봄이면 집안 사녀(士女)가 그 골 남쪽 시내에 모여 잔치를 하였다. 이때 온갖 꽃이 피고 송화(松花)가 골속에 가득 하였다. 이 골에 암자를 짓고 송화방(松花房)이라 하여 원찰(願刹)로 삼았다고 한다. 신라에도 능묘(陵墓)의 주위에 송림(松林)이 울창하게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경주(慶州)의 능역(陵域)에는 송림(松林)이 울창하다.

⑨ 죽(竹) : 사기 유례왕(史記 儒禮王) 14년(297) 이서고국(伊西古國)이 신라의 금성(金城)(왕성(王城))을 공격할 때 신라군을 도와서 싸운 군대가 있었는데 귀에 땀 잎을 꽂고 적을 물리쳤다. 그후 그들이 간 곳을 알지 못하였는데 죽장릉(竹長陵)(미추왕릉(味鄒王陵))에 죽엽(竹葉)이 수많이 쌓여 있었다. 이로 하여 선왕(先王)의 음병(陰兵)이 도와준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경주 천마총(天馬塚)이 있는 고분 공원내(古墳 公園內)의 죽장릉(竹長陵)과 그 주위에 키가 작은 대나무가 고분(古墳)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장릉(竹長陵)이란 능(陵)에 죽(竹)을 심어 죽림(竹林)이 우거져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다.

유사 만파식적(遺事 萬波息笛)에 보면 신문왕(神文王)이 감은사(感恩寺)앞 동해중(東海中)의 부산(浮山)에서 죽(竹)을 얻어 만파식적(萬波息笛)을 만들었다. 이 만파식적은 신라의 국보(國寶)였다.

유사 경문대왕조(遺事 景文大王條)에 보면 복두장(幘頭匠)의 이야기 속에 도림사(道林寺)의 죽림(竹林)이 나온다. 그리고 사기 애장왕(史記 哀莊王) 2년(801) 10월에 죽(竹)이 얼어죽었고 열전 최치원조(列傳 崔致遠條)에 송죽(松竹)을 심는 기록을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유사(遺事), 낙산 이대성관음정취조신조(洛山 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에 보면 좌상산정(座上山頂)에 쌍죽(雙竹)이 날것이니 그 땅에 불전(佛殿)을 짓도록 하였다. 의상(義相)이 듣고 글을 나오니 과연 대가 솟아 이터에 금당(金堂)을 지었다고 하였다.

⑩ 산수유(山茱萸) : 유사 경문대왕조(遺事 景文大王條)에 보면 복두장(幘頭匠)이 죽을 때

도림사(道林寺)의 죽림(竹林)속에 들어가서 「우리 임금님의 귀는 나귀의 귀와 같다」 고 소리친 후 바람이 불면 대 소리가 이와 같은 지라 다 베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산수유는 이른봄에 꽃도 좋고 수형(樹形)도 아름다우며, 열매는 약재가 되는 것이니 많이 심었을 것이다.

⑪ 연(蓮) : 사기 지마왕(史記 祗摩王) 12年(123) 5월에 금성(金城) 동쪽의 민옥(民屋)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 못이 되었는데 못속에서 연(蓮)이 나왔다. 유사 혜공왕조 궁북(遺事 惠恭王條 宮北)의 뒷간속에서 두줄기 연(蓮)이 나오고 봉성사 전중(奉聖寺 田中)에 연(蓮)이 나왔다. 연화(蓮花)는 불교(佛敎)의 상징적 꽃으로 연지(蓮池)에 많이 심었던 것이다. 법주사(法住寺)의 석연지(石蓮池)나 공주박물관(公州博物館)의 백제 석연지(百濟 石蓮池) 등이 모두 연화(蓮花)를 심었던 기구들이다.

⑫ 척족(躑躅)(철죽) : 유사 수로부인조(遺事 水路夫人條)에 보면 성덕왕(聖德王)때(702~736) 순정공(純貞公)의 부인 수로(夫人 水路)는 절세(絶世)의 미인(美人)이었는데 강능태수(太守)로 부임하는 남편을 따라 가다가 만발한 철죽꽃을 복 꽃을 꺾어 받치게 하여 여기서 헌화가(獻花歌)가 생기었다. 이 철죽은 아름다운 미인(美人)의 인연을 상징하는 꽃으로 많이 심었을 것이다.

⑬ 차(茶) : 사기 신라 흥덕왕(史記 新羅 興德王) 3年(828) 조(條)에 대렴(大廉)이 당(唐)에 갔다 오면서 차(茶)의 종자(種子)를 가지고 오매 왕(王)은 그것은 지리산(地理山)에 심게 하였다. 차(茶)는 선덕왕(善德王)(632~646) 때부터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성행(盛行)하였고 기록하였다.

⑭ 인삼(人蔘) : 사기 신라 성덕왕(史記 新羅 聖德王) 33年(734)조(條)를 보면 당(唐)에 보내는 물목중(物目中)에 인삼 이백근(人蔘 二百斤)이 들어 있고 효성왕(孝成王) 3年(739)에도 인삼백근(人蔘百斤), 소성왕 원년(昭聖王 元年)(799), 길이 9척(尺)이나 되는 인삼(人蔘)을 당(唐)에 보냈다. 경문왕(景文王) 9年(869) 인삼 백근(人蔘 百斤)을 당(唐)에 보냈다. 이때 이미 인삼(人蔘)을 재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백차 왔다 갔다 하는 사신(使臣)의 왕래 속에 인삼(人蔘)은 중요(重要)한 물목(物目)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삼(人蔘)은 동양(東洋)에 있어서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영약으로 약포(藥圃)에 심어 가꾸웠던 약용식물(藥用植物)이다.

⑮ 행(杏) : 유사 혜통항용조(遺事 惠通降龍條)에 일연(一然)이 찬(讚)하는 글 속에 「산도(山桃)와 계행(溪杏)이 울타리에 비치니 일경(一徑)에 봄이 깊어 양안(兩岸)에 꽃이 붉다」 한 구절이 있는데 이는 밀교승 혜통(密敎僧 惠通)의 죽적에 대한 찬문(讚文)이기 때문에 고려시대(高麗時代) 당시의 모습이며 또는 상징적인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행목(杏木)은 유교(儒敎)와 관련되는 나무여서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이미 많이 심어졌을 것이다. 공자(孔子)가 제자를 가르치던 유적인 중국 산둥성곡부현(中國 山東省曲阜縣)의 성묘내(聖廟內)에 「행단(杏壇)」이란 비(碑)가 서고 행림(杏林)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행단(杏壇)이란 선비가 공부하는 곳이란 별칭이 되었는데 조선시대 서원(書院), 향교(鄕校)에 은행나무가 꼭 서있는 것이 그러한 연유이다.

신라에도 태학(太學)이 있었고 고구려와 백제에도 유학(儒學)이 들어와 성행하였다.

지금 천연기념물(天然紀念物)로 지정된 용문산(龍門山)의 은행나무(수령 약 1100年), 영월(寧越)의 은행나무(수령 약 1000年)등은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있었던 나무로 볼 수 있다. 이들 거목(巨木)은 신목(神木)이 되어 민속 신앙의 대상으로 보호된 나무들이다.

⑯ 료(栗) : 료(栗)은 심는 기록은 없으나 신목(神木)의 거목(巨木)으로 많이 남아 있고 옛부터 제과(祭果)로 많이 심었던 나무이다.

⑰ 석류(石榴) : 조선시대 강희안(朝鮮時代 姜希顔)의 강화소록(姜花小錄)에 나오는 기록이지만 신라종(新羅種)의 독특한 석류(石榴)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⑱ 왕버들 : 신라(新羅)의 기록속에 천경림(天鏡林)과 신유림(神遊林) 및 계림(鷄林)은 대단히 신성시한 원림(苑林)이었던 것이다. 지금 이러한 곳에는 왕버들이 거목(巨木)으로 서 있다. 그리고 이 왕버들이 살기에 적합한 자연(自然)조건이며 자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림(鷄林)숲의 대종을 이루는 나무는 왕버들과 느티나무이다.

⑲ 뽕나무 : 사기 신라 파사왕(史記 新羅 婆娑王) 3(82)年條에 보면 왕(王)이 농상(農桑)을 권(勸)하는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高句麗), 신라(新羅), 백제(百濟)가 다 비단생산을 많이 했던 것이다. 뽕나무는 물감원료가 되고 또 활을 만드는 자료였으며, 부상(夫桑)이란 나무는 중국(中國)에서 해가 뜨는 동(東)쪽 바다 속에 있는 신선한 상징적 나무로 산동성 무씨사당 화상석(山東省 武氏祠堂 畫像石)에 새겨있다.

조선시대 태종실록(朝鮮時代 太宗實錄) 9年(1409) 3월에 보면 태종(太宗)이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궁실에 만든 공상제도(公桑制度)를 본떠서 뽕나무를 심게 한다. 이들 뽕나무는 지금 경복궁(景福宮)과 창덕궁(昌德宮)에 거목(巨木)으로 남아 있다.

⑳ 단목(檀木)(박달나무) : 유사 고조선조(遺事 古朝鮮條)에 보이는 단군(檀君)이 태백산(太白山) 꼭대기 신단수하(神檀樹下)에 내려 신시(神市)를 열었다. 박달나무는 향목(香木)이며 고조선(古朝鮮)의 신목(神木)이고 활을 만드는 나무이기도 하였으며 나무가 여플어 기구(器具)를 만드는 자료로도 쓰였다. 단궁(檀弓)은 후한서(後漢書)에동이(東夷)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㉑ 등나무 : 경주(慶州)에서 가까운 월성군 건곡면 오유리(月城郡 見谷面 五柳里)에는 천연 기념물(天然紀念物) 第89號로 지정된 노거수(老巨樹)인 등나무가 있다. 이 등나무는 신라(新羅)의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신라 때는 이곳이 용림(龍林)이라 하였던 곳이다. 경주(慶州) 포함한 산 지역 등에 많은 등나무가 지금도 자생(自生)하고 있다. 꽃도 좋고 용(龍)같은 모양의 넝쿨이 기어오르는 수형(樹形) 때문에 원림(苑林)의 수종이 되었을 것이다.

㉒ 기화이초(奇花異草) : 사기 백제 진사왕(史記 百濟 辰斯王) 7年(391)에 궁내(宮內)에 산과 원지(苑池)를 만들고 기화이초(奇花異草)를 심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 동성왕(東城王) 22年(500) 궁성 동쪽에 못을 파고 진기한 짐승을 길렀으며 무왕(武王) 37年(636) 사비하 북포(泗泚河 北浦) 양언덕에 기암 괴석(怪石)을 착립(錯立)하고 기화이초(奇花異草)를 심었다. 신라(新羅)는 문무왕(文武王) 14年(674) 궁내(宮內)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고 기화이초(奇花異草)와 진귀한 짐승을 길렀다. 그리고 유사(遺事)에 백제 무왕(百濟 武王)때 왕흥사(王興寺)를 창건하였는데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 보며 화목(花木)이 수려(秀麗)하였다는 기록 등은 큰 교목류(喬木類)가 아니고 화목(花木)의 관목류(灌木類)거나 초화류(草花類)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화이초(奇花異草) 속에는 동양 고래(東洋古來)로 향초로 일컬어지는 난종류(蘭種類)나 삼국유사 관동풍악발 연수석기조(三國遺事 關東楓岳鉢 淵數石記條)에 「속리산(俗離山)에 길상초(吉祥草)가 나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정사(精舍)를 세우라」는 기록에 보이는 길상초(吉祥草)는 백합과(百合科)에 속하는 숙근초(宿根草)이며 부여의 고난사(古蘭寺)에 있는 고난초(古蘭草)등은 향초 속에 든다. 그리고 지초(芝草)나 인삼(人蔘) 등의 약초(藥草)나 뱀고사리 등속이 괴석(怪石)과 조화롭게 심어졌을 것이며 또 철죽이나 매화(梅花), 모란 같은 화목류(花木類)가 심어졌으리라 본다. 이외에도 석조 조각이나 기와 막새 및 전(塼)에 새겨진 국화(菊花)나 포도 및 여러 가지 무늬와 고구려 벽화 고분(古墳)의 벽화속에 나오는 수종들

은 그 당시의 원림(苑林)에 심어진 식물일 수도 있다.

이상이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조경(造景)수종을 살펴본 것이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조경수(造景樹)는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파한집(破閑集) 보완집(補閑集)에 나오는 고려시대 조경식물(造景植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수종들이 보인다.

도(桃), 연(蓮), 매(梅), 행(杏), 모란(牡丹), 백(柏), 송(松), 죽(竹), 이이(李梨), 유(柳) 두견화, 오(梧), 석류(石榴), 국(菊), 계관화, 백일홍(白日紅), 근(槿), 창포, 동백(冬栢), 초(蕉), 작약(芍藥), 풍(楓), 목필화(木筆花), 촉규(蜀葵), 옥매(玉梅), 단가(丹佳), 금전화(金錢花), 굴, 장미, 유자, 서향(瑞香), 포도(葡萄), 차삼(茶杉), 향(香), 목조(木瓜) 등이 다.

조선시대(朝鮮時代)는 산림제경(山林濟經)나 지봉유설 노계집(芝峰類說 蘆溪集), 양화소록(養花小錄), 민속악(民俗樂), 시조(時調) 속에서 나오는 조경수를 보면 고려시대(高麗時代)까지의 수종(樹種)을 제외하고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

조(棗), 전춘라(剪春羅), 일본척족(日本躑躅), 정향(丁香), 영률곡(嬰栗穀), 당이(棠梨), 봉선화(鳳仙花), 시(柿), 화이(華梨), 임금(林檎), 소철(蘇鐵), 산단(山丹), 흰(萱), 두충(杜冲), 황양(黃楊), 백합(百合), 종려(棕櫚), 진추라(剪秋羅), 유(榆), 맥문동(麥門冬), 추해당(秋海棠), 러춘화(麗春花), 수선화(水仙花), 소방목(蘇方木), 향일규(向日葵), 합환(合歡), 홍람(紅藍), 지실(枳實), 금등(金藤), 어유화(御留花), 목숙(苜蓿), 산계(山薊), 황정(黃精), 당귀(當歸), 자강(子薑), 흰초(萱草), 홍삼(紅蔘), 파초(芭蕉) 등이다.

3. 수종(樹種)의 특색(特色)

조경(造景)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자연조건(自然條件)이며 다음이 기능(機能)이다. 그러기에 기후, 토질, 지형(地形), 지면(地面)은 움직일 수 없는 기본조건(基本條件)이 되고 여기에 부합하여 조화(調和)와 기능(機能)을 부여하도록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받아야 사는 양수(陽樹)와 그늘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음수(陰樹)가 있고 토질이 건조(乾燥)한 곳에 살 수 있는 수종(樹種)과 혼지(混地)에 살 수 있는 수종(樹種)이 있다. 그리고 사양토(砂壤土)를 좋아하는 수종(樹種)과 양토(壤土)를 좋아하는 수종(樹種)이 있다. 또 뿌리가 깊어서 바람을 막는데 좋은 수종(樹種)이 있으며 바다의 호수(湖水)에 견디는 수종(樹種)과 호수(湖水)에 약한 수종(樹種)이 있다. 대기오염(大氣汚染)에 저항력이 있는 수종(樹種)과 잎의 색깔이 아름다운 수종(樹種), 꽃이 아름다운 수종(樹種),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樹種), 나무의 껍질(수피(樹皮))이 아름다운 수종(樹種)이 있다.

나무의 형태(形態)로서 넝쿨이 있고 키가 작은 저목(低木)과 가지가 늘어지는 지수형(枝垂形)과 가지가 곧게 치뻗는 직지형(直枝形)과 가지가 일정높이에서 옆으로 자연(自然)스럽게 벌어지는 불계형(不齊形) 및 타원형이나 끝이 뾰족하게 되고 밑이 넓어지는 원추형(圓錐形)과 수형(樹形)이 원통형(圓筒形)이 되는 것들도 있다. 여기서 한국 전통 조경의 공간 속에는 원추형(圓錐形)과 원통형(圓筒形), 타원형(橢圓形)의 정형적(整形的) 나무는 별로 심어진 예가 없다. 이러한 수종(樹種)들은 토질(土質), 지형(地形), 지면(地面)의 대소(大小)면적, 환경, 기후, 기능, 조화(調和)에 따라 적지적소(適地適所)에 잘 배치되어야 할 것인바 한국전통조원공간(韓國傳統造苑空間)에서 많이 쓰이는 수종(樹種)에 한하여 살펴본다.

① 건지성 수종(乾地性 樹種)

적송, 흑송, 금송, 졸참나무, 갈참나무, 명자나무, 매화, 가죽나무, 해당화, 향나무, 철죽 등.

② 적윤지성 수종(適潤地性 樹種)

잣나무, 수양버들, 태산목, 목련(木連), 무궁화, 팔손이, 식나무, 층층나무, 아왜나무, 팡나무, 자작나무 등.

③ 사양토성 수종(砂壤土性 樹種)

적송, 흑송, 섬잣나무, 금송, 전나무, 은행나무, 자작나무, 모란, 목련, 태산목, 매화, 벗나무, 돈나무, 등나무, 싸리나무, 동백나무, 오동나무, 향나무 등.

④ 양토성 수종(壤土性 樹種)

주목, 잣나무, 수양버들, 참나무, 목련, 단풍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층층나무, 철죽, 아왜나무 등.

⑤ 음 수(陰 樹)

주목, 가라목, 비자나무, 돈나무, 팡팡나무, 동백나무, 팡나무, 아왜나무, 가문비나무, 산죽진달래, 단풍나무 등.

⑥ 양 수(陽 樹)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 수양버들, 참나무, 명자나무, 매화, 가죽나무, 벽오동, 배롱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감나무, 명자나무, 자두나무, 무화과나무, 배나무, 뽕나무.

⑦ 방풍 수종(防風 樹種)

적송, 흑송, 느티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팡나무, 메밀жат 밤나무, 구실жат 밤나무, 후박나무, 돈나무, 붉가시나무, 생달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말채나무, 푸조나무, 참느릅나무 등.

⑧ 대기오염(大氣汚染)에 저항성이 있는 수종(樹種)

은행나무, 비자나무, 식나무, 녹나무, 버드나무, 치자나무, 아왜나무, 동백, 후박나무, 협죽도, 팔손이나무, 굴거리나무, 벽오동, 가죽나무, 느릅나무, 개나리, 태산목, 벗나무, 석류나무, 돈나무, 버즘나무 등.

⑨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樹種)

석류, 낙상홍, 주목, 식나무, 산사나무, 의나무, 아왜나무, 돈나무, 감탕나무, 앵두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매자나무, 아광나무, 대추나무, 개동청목, 은행나무, 매화나무, 모과나무, 굴나무, 탕자나무, 포도, 무화과, 마취목, 치자나무, 주엽나무, 작살나무, 명자나무, 배나무, 유자나무 등.

⑩ 나무의 몸과 껍질이 아름다운 수종(樹種)

소나무(귀갑(龜甲)), 자작나무(백색(白色)), 느티나무(회백색(灰白色)), 벽오동(청록색(靑綠色)), 배롱나무(적갈색(赤褐色)), 광택(光澤)), 모과나무(갈색(褐色) 반점문), 단풍나무(회색(灰色)), 죽(竹) 등.

⑪ 잎이 아름다운 수종(樹種)

단풍나무, 감나무, 철죽, 은행나무, 후박나무, 아왜나무, 굴거리나무, 목련, 백합, 금송, 담팔수, 태산목, 유자나무 등.

⑫ 넝쿨 수종(樹種)

포도나무, 등나무, 다래나무, 칩, 머루, 능수화, 담쟁이, 덩굴 등.

⑬ 저 목(低 木)

철죽류, 개나리, 명자나무, 모란, 팔손이, 산죽(山竹) 등.

⑭ 가지의 공간구성(空間構成)이 아름다운 나무

느티나무, 팡나무, 감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배롱나무, 모과나무, 은행나무, 말채나무, 배나무,

담팔수, 왕버들, 수양버들 등.

⑮ 화초(花草)나 향초(香草)

자약, 금잔화, 난류(蘭類), 연화(蓮花), 국화(菊花), 인삼(人蔘), 박하 양귀비, 지초(芝草), 땃문둥, 뱀고사리, 억새, 갈대, 채소류 잔디 등.

⑯ 꽃이 아름다운 수종(樹種)

매화, 모란, 배롱나무, 배나무, 복숭화, 철죽류, 목련, 오얏나무, 석류, 동백, 살구나무, 백합, 목련, 해당화, 앵두나무 등.

⑰ 향기를 많이 풍기는 나무

유자나무, 치자나무, 모과나무, 배나무, 살구나무, 후박나무, 굴나무, 탱자나무, 석류나무, 목련, 등나무 등.

⑱ 조해(潮害)에 견디는 수종(樹種)

섬잣나무, 흑송, 향나무, 자작나무, 논나무, 해당화, 굴, 거리나무, 담팔수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노간주나무, 비술나무, 등나무, 돈나무 등.

⑲ 조해(潮害)에 약한 수종(樹種)

은행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수양버들, 목련, 매화, 벚꽃나무, 배롱나무 등.

4. 식수(植樹)의 배식(配植)

한국(韓國)의 조경공간(造景空間)에는 ① 화목(花木) ② 수천(水泉) ③ 석(石) ④ 기구(器具) ⑤ 건물(建物) ⑥ 산(山) ⑦ 보도(步道) ⑧ 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8가지 구성요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花), 목(木)의 배식(配植)에 대(對)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화(花), 목(木)은 ① 꽃 ② 나무 ③ 넝쿨 ④ 풀의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꽃 : 꽃을 심는 곳은 마당 앞 담 밑이나 뒤뜰 등 집 가까이에 심어야 한다. 꽃은 화분에 분재하여 놓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단(壇)을 만들어 심는다. 여기서 꽃이라 하는 것은 다년생 이던 1년생이던 한길 이하 되는 것을 말한다. 다년생(多年生)꽃은 괴석(怪石)의 주위나 가산(假山)의 산자락과 큰 나무의 앞에 심어서 공간의 조화(調和)있는 구성을 할 수 있다. 그 수종이 음수일 때는 교목(喬木)밑의 지면(地面)을 덮어서 식생(植生)의 유기적 생태(生態) 기능을 높일 수도 있다. 좁은 공간에 땅을 높여서 장대석이나 전(塹)으로 쌓아올린 터에는 큰 나무가 설 수 없는 경우에 다년생 화목(多年生花木)이 좋고 일년생(一年生)도 상관없으나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꽃은 큰 원림(苑林)을 조성하거나 넓은 유적지(遺蹟地)를 조경하는 데는 꽃만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으며 이는 피해야 하는 것이다. 꽃은 사람이 사는 집의 뜰과 후원에 심거나 화분으로 놓는 것이 기본이다.

② 나무 : 나무를 심는 데는 몇가지 배식방법이 있다.

가. 숲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하는 경우

나. 무리(군식(群植))를 이루게 하는 경우

다. 보도나 담장등 선(線)을 따라 심는 경우

라. 다른 물건에 덧붙여 심는 경우

마. 단독으로 강하게 강조하는 식수의 경우 등이 있다.

숲을 이루게 하는 것은 산과 골짜기 등 지면이 굴곡진 곳에 배치됨이 좋고 무리를 지우고 있는 경우는 평지(平地)가 되어야 한다. 숲을 이루는 경우에 정형식(整形式) 정원에서 보는 열식이거

나 전지되는 나무거나(정원수) 식생(植生) 생태적으로 숲이 될 수 없는 수종을 심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사람이 심었는데 가장 자연(自然)스러운 수림의 조성이 되기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부등변 삼각 식재법(不等邊 三角 植栽法) 같은 것이 좋다. 나무의 공간구성에 있어 주목(主木)을 중심으로 중목(中木)과 저목(低木)을 붙혀 심어서 미적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다.

평지(平地)에는 부등변 삼각(不等邊 三角)의 배식 방법으로 2柱 1柱 2柱에 또 3柱 1柱 2柱와 1柱 1柱 4柱등의 식재를 혼합하면 자연(自然)스럽게 된다.

평지(平地)나 산에 숲을 이루거나 군식(群植)의 무리를 조성할 때는 여러 가지 수종을 쓰는 것 보다는 같은 수종이나 또는 두세가지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는 수형(樹形)의 조화와 식생(植生)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지저분한 잡종의 부조화(不調和)를 피할 수 있다.

부등변삼각형(不等邊三角形)의 배식(配植)과 공간구성(空間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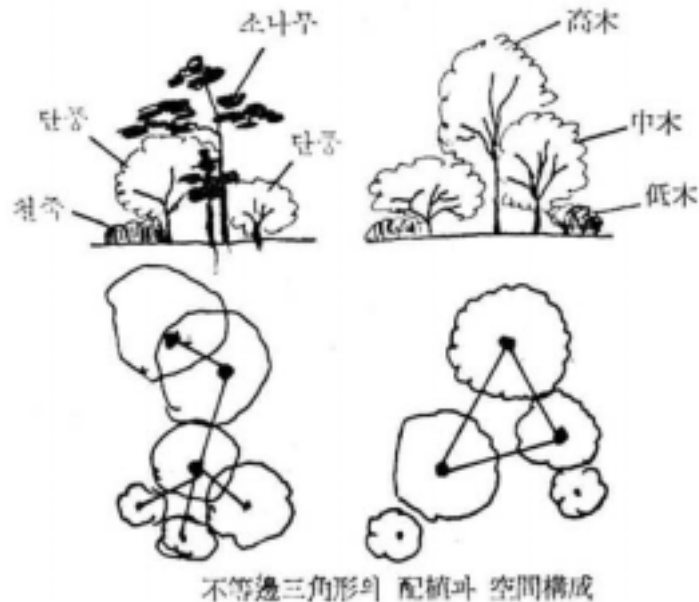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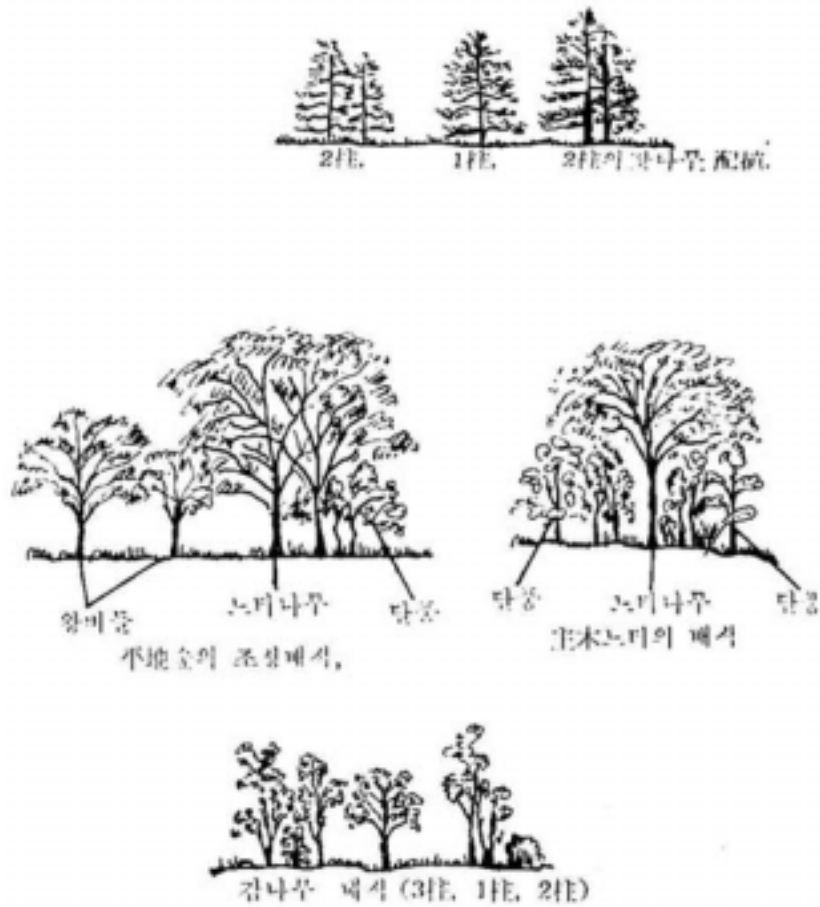


圖7. 자연풍경식식재(自然風景式植栽)



도 8. 숲이나 무리를 형성하는 자연풍경식 배식(自然風景式 配植)

圖8. 숲이나 무리를 형성하는 자연풍경식 배식(自然風景式 配植)

사당이나 집의 후원(後苑)에 배경으로 나무를 심을 경우는 그 집의 배경을 감쌀 수 있는 거목(巨木)의 나무들이 좋다. 길고 큰 담이 강하게 지나가고 있는 공간에는 담을 나무로 잘라서 기하학적인 구조물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야 하고 직각이 되거나 담의 단이 지는 공간은 식재(植栽)로서 가려야 한다. 그리고 담 內와 外에 같은 수종으로 군식(群植)을 하여 숲을 이루면 담으로 막혀진 공간의 감이 없어지고 자연(自然)스러운 숲의 연속으로 보여서 숲속에 담이 있어도 무한한 연속감을 주고 인공적(人工的)인 부조화(不調和)를 제거시킬 수 있다.

경사진 곳의 식수(植樹)는 단(段)을 지워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때 단(段)의 높이가 1m정도 되는 것이 좋고 사람 키 높이가 넘으면 위압감을 느낀다. 단에 심은 나무는 소나무, 주목, 동백, 아왜나무, 키 큰 철죽도 좋다. 상록수가 좋고 단(段)은 넉넉한 식물이 가려주도록 함이 좋다. 칩이나, 담쟁이 넉쿨도 좋은 것이다. 보도(步道)를 따라 심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면(地面)이 평면(平面)이면 길에서 2~3m쯤 떨어져 안으로 심고 작은 관목이 앞에 배치되는 것이 좋으며 보도의 연석에 붙여서 심으면 답답하고 길가의 잔디처리가 나쁘게 된다. 관목류도 2m쯤 떨어져는 것이 좋다. 좁은 면적을 넓게 보이게 하려면 길가에 큰 나무를 심지 말고 담 밑 뿌리나

담장 內外에 숲을 조성하고 경내는 잔디 등으로 깨끗이 처리하면 훨씬 시원하고 넓어 보인다. 길가에 심는 나무는 대칭적이어서는 안되고 비대칭의 군식이 좋다. 만일 길이 끝쪽에 있다면 이때는 나무를 길 가까이 심어 숲속으로 만들어 더욱 깊은 맛을 주도록 처리함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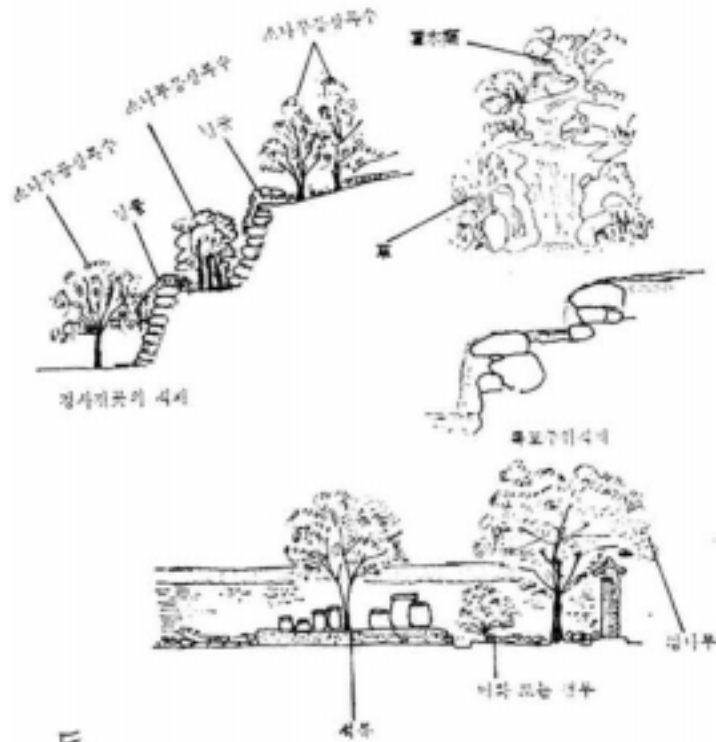


圖9. 신목(神木)같은 것은 단(壇)을 쌓아 보호함(동궐도(東關圖)에서)

나무를 다른 물건에 덧붙여서 심는 경우에는 그 덧붙이는 물건과의 조화(調和)가 제일 중요하다. 고목(枯木)에 덧붙이는 경우 석조물(石調物)이나 건물(建物), 다리, 전주 등에 덧붙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주물(主物)인 물건을 돋보이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가려야 하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다. 탑(塔)을 두고 나무를 꼭 심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는 낮은 나무로 탑(塔)을 드러나게 해야 하지 상록수 따위의 높은 나무를 심으면 탑이 낮아 보이고 가리게되며 겨울에는 그늘이 저서 탑의 풍화를 가속시키게 된다.

다리나 담 같은 구조물은 숲으로 덮어야 조화적이니 큰 나무를 심되 가지가 옆으로 넓게 덮는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왕버들 같은 것이 좋고 직간으로 자라는 나무는 피해야 한다.



도 10. 인가의 장고방 경사진 언덕과 폭포주위 식재

圖10. 인가의 장고방 경사진 언덕과 폭포주위 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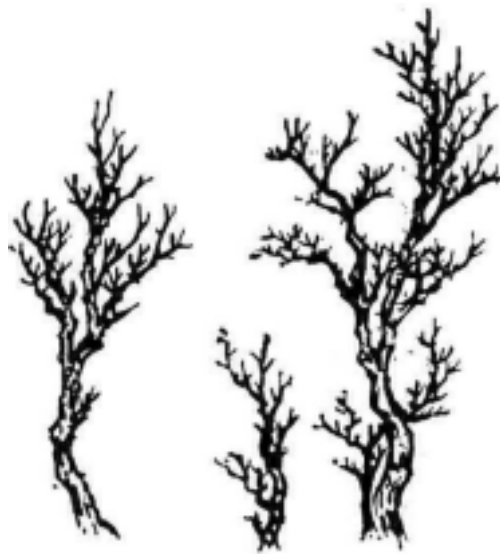
전주나 배수구의 망홀같은 것을 가려야 하는 경우는 주목이나 동백, 철죽, 죽(竹) 같은 상록 수종으로 자연스러운 군식(群植)을 하여 가려야 한다. 이 때는 여러 수종보다 한가지 수종(樹種)이 효과적이다.

괴석(怪石)이나 석지(石池), 석단(石壇)에 심는 것은 키가 작은 관목류로 하여야 하며 밀뿌리를 가리거나 한 부분을 가려서 조화(調和)를 이루게 하여야 한다. 다음은 나무 단독으로 공간의 구성을 아름답게 강조하는 경우의 식재(植栽)이다. 한국 전통조경 공간에는 이러한 나무가 그저 몇 그루 서있는 경우다. 지중(池中)의 섬에 심은 나무나 별당이나 사랑 앞에 심은 한 두 주의 나무, 연못가의 특별한 공간에 심은 목백일홍, 반송같은 나무, 서원이나 궁(宮)등에 심은 기념식수거나 상징적 나무 등이다. 이런 나무는 함부로 심는 것이 아니라 고르고 고른 가목(佳木)이며 식재(植栽)위치도 세심한 배려가 있다. 옛사람들은 별당 앞에 완상하는 한나무를 심을 때는 괴석(怪石)의 아름다운 공간구성을 중히 여겼고 늙은 매화같은 가목(佳木)이었다. 두주나 세주를 심거나 다섯주를 심거나 하는 경우에 그림의 구도같은 조화의 아름다움을 좋아하였고 이는 잃어진 가지의 공간 구성에서 더욱 그러한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도
圖 11. 동양정원의
1주의 공간구성

圖11. 동양정원의 1주의 공간구성



도
圖 12. 동양정원의
3주의 공간구성

圖12. 동양정원의 3주의 공간구성

이러한 것은 조원(造苑) 공간의 중요한 위치에서 특별히 강조할 경우에는 값이 비싸더라도 이러한 가목(佳木)을 몇 주만 심으면 크게 돋보이게 된다.



도
圖 13. 5주의 공간구성

圖13. 5주의 공간구성



도
圖 14. 4주의 공간구성

圖14. 4주의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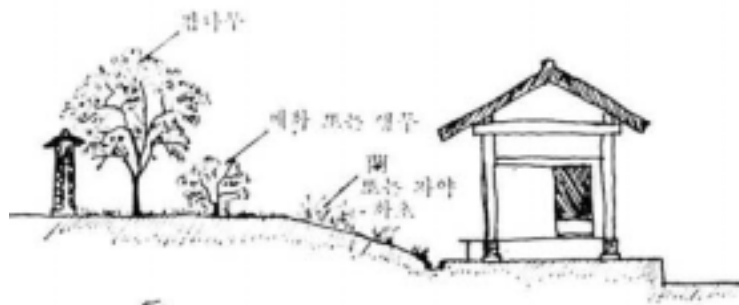
문을 들어서면 담안 가까운 곳이거나 사랑 앞 별당 앞이거나, 정원의 기념물이 있는 장소 주위에 감상의 대상이 되는 적송, 매화, 목백일홍, 모과, 석류 등의 늙은 나무는 그러한 효과를 준다.

그리고 안압지 같은 원지(苑池)의 외곽 주위는 죽림(竹林)을 조성하면 소음을 흡수하고 넓고 아득하며 부드럽고 고요한 경관을 준다. 가산(假山)의 주위는 키가 작은 관목을 심고 섬에 적송

같은 드러나게 늙은 나무를 독립되게 심고 괴석과 풀을 어울려 조화시키면 가산(假山)의 산봉우리 선(線)이 살고 깊은 골짜기의 유현한 공간이 나타나며 뚝뚝히 가리는 나무가 서면 효과적이다. 안압지 같은 곳은 북쪽과 동(東)쪽의 조산(造山)에 큰 나무를 심어 가려 버린다면 못이 좁아지고 협곡도 가려지며 가산(假山)의 괴석(怪石)과 봉우리가 모두 숲속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

한국 조원(造苑)에 있어 궁(宮)이나 사찰의 회랑 내에는 나무가 없었고 민가(民家)의 마당 가운데에도 나무를 심지 않으며 민가(民家)는 과목(果木)이 조경수(造景樹)의 주(主)가 된다. 우리 나라 감나무는 대표적 조경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민가에서는 감나무, 대추나무, 석류, 앵두, 오얏, 살구, 야자, 모과, 고염나무, 참죽나무, 무화과, 굴나무, 탕자나무, 호두나무 등속이 많이 심어졌다.



은
圖 15. 민가의 집후원 식재

圖15. 민가의 집후원 식재

이들은 담가, 후원, 마당외곽, 문 앞에 배치되어 인공적(人工的)인 집을 자연(自然)에 동화(同和)시키고 계절의 흐름을 어김없이 알리며 인정(人情)의 풍요한 순화와 선조의 제상에 오르는 제과로서 효(孝)의 정성도 길렀던 것이다. 이들은 구태여 자연적인 배식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인공적 정형(人工的 整形)의 식수(植樹)를 하지 않고 자연(自然)의 아름다움을 그리도 잘 체득하고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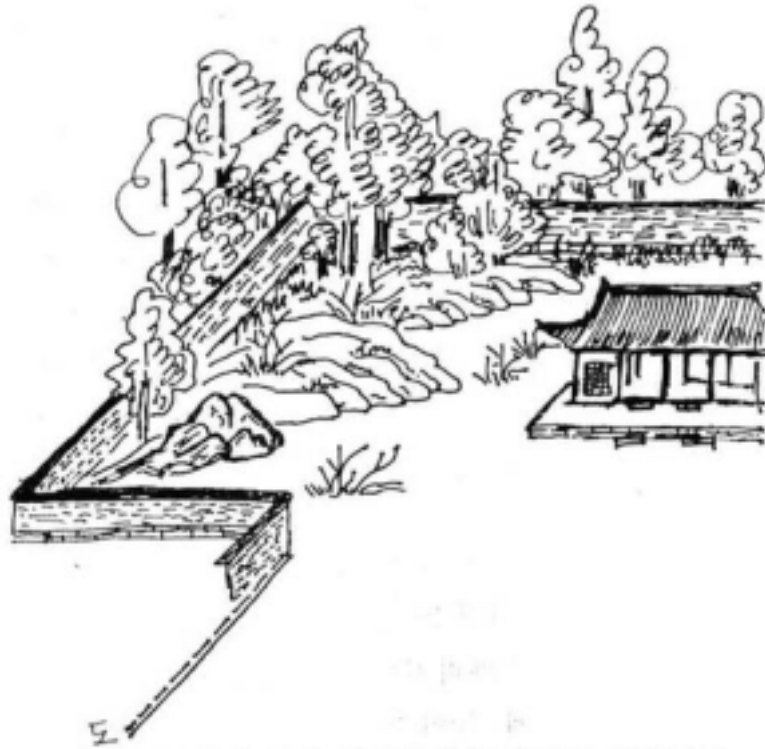


圖 16. 민가 후원 산자락이 끝난곳의 조원조성

圖16. 민가 후원 산자락이 끝난곳의 조원조성

③ 녕쿨 : 녕쿨로서 등나무가 대표적이다. 녕쿨은 높은 시렁에 서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 담장이나 울타리에 덧붙이게 하는 경우가 있고 높은 고목에 영키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단(段)을 조성한 곳을 가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녀쿨 식물로서는 다래, 머루, 포도, 칩, 능수화, 등나무, 담쟁이 등이 있다.

등나무는 후원이나 길가에 심어서 그늘을 얻을 수가 있으며 사람이 앉아 쉬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테라스의 조성으로 인공적인 구조물을 한국정원에 배치하면 자연미(自然美)를 깨트린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연(自然)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다래나, 머루, 더덕같은 녕쿨을 원림(苑林)속에 심어서 심산유곡의 깊은 정취를 맛보게 하는 것도 좋은 착안이며 칩이나 담쟁이 등으로 인공적(人工的)인 담이나 축대를 가리게 하거나, 늘어죽은 고목에 능수화를 올려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포도는 집안의 마당가에나 문앞의 과원(果園)을 조성하면 좋은 것이다.

④ 초(草) : 초(草)는 조원(造苑) 공간의 처리되지 않은 곳을 전부 마감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초(草)를 심는 방법으로는 지면의 노출을 덮은 방법으로 심는 것, 괴석(怪石), 폭포 등 조석물(組石物)의 사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심는 것, 소음을 방지하거나 식생의 지력을 보호하거나 동물(動物)의 서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는 것, 화분이나 단(壇)을 조성하여 심는 것이 있다.

지면(地面)의 노출이나 토사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심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잔디이다.

그러나 햇볕을 받지 못하는 음지에는 맹문동 같은 음지 초(草)를 심어야 한다. 이는 깎아서 크기가 골라야 하는 것이다. 괴석(怪石), 폭포, 연못가의 자연석(自然石)등에 심는 초(草)는 난

(蘭)이나 백고사리 같은 것으로 이는 지면(地面)의 노출을 방지하는 초류(草類)와는 달리 그 크기나 포기가 달라야 한다. 그래야 석물(石物)과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는 평지(平地)가 많지 않고 굴곡진 곳들이 많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소음을 방지하거나 숲속의 지면(地面)에 임상(林相)을 보호하거나 평이나 들짐승이 새끼를 치고 서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은 억새풀이나 갈대숲이 좋다. 자못 자연적(自然的)인 조화를 이루게 하며 야생의 초류(草類)이기 때문에 박한 땅에서도 잘 산다. 이러한 풀은 자주 깎아주거나 해서는 안되며 자연(自然)스럽게 심어져야 한다.

끝으로 화분(花盆)에 심어지는 초(草)는 난(蘭)이 대표적이다. 이 종류의 초류(草類)는 기화이초(奇花異草)에 속하는 것으로 옛부터 동양(東洋)의 정원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초류(草類)는 약용(藥用)식물이 많아서 약포(藥圃)가 조성되었고 채소류도 정원에 심어져 채포(採圃)가 있었다. 그리고 수지(水池)에 심었던 수초(水草)가 있으며 연(蓮)도 그와 같은 것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연(蓮)은 석연지(石蓮池) 속에도 심었던 것이다. 조원(造苑)의 공간 속에서 가장 관리하기 힘든 것이 초(草)이며 또한 꽃이나 나무나 넝쿨보다 격이 높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조경 공간에는 정형식 식수를 피하고 자연풍경식(自然風景式) 배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문화재(文化財)의 유적공간에는 한국전통의 조경양식을 지켜나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① 三國史記
- ② 三國遺事
- ③ 韓國上古史資料, 韓國文化人類學叢書 3
- ④ 高麗史 節要
- ⑤ 鄭瞳昨, 韓國造景植物의 史蹟考察, 演習林報告 第2號, 全南大學校 農科大學
- ⑥ 尹國炳, 造景史, 一湖閣, 1979
- ⑦ 樂嘉藻, 中國建築史, 第一編 庭園
- ⑧ 森蘊, 日本の庭園, 吉川弘文館, 1964
- ⑨ 秋山日出雄, 飛鳥島庄の苑池遺構, 佛教藝術, 109號, 昭和 51年
- ⑩ 猪熊兼勝, 飛鳥藤原の園池遺跡, 佛教藝術 109號, 昭和 51年
- ⑪ 田中哲雄, 平城京左京三條二坊六坪の庭園遺蹟, 佛教藝術 109號, 昭和 51年
- ⑫ 장문호, 동양미술사
- ⑬ 造景設計基準, 建設部, 1975
- ⑭ 造景設計基準, 建設部, 1976
- ⑮ 芥子園畫傳, 綾城出版社
- ⑯ 晋山世稿, 卷四, 養花小錄, 晋山世稿重刊委員會, 1972
- ⑰ 鄭碩鎮, 愚山史蹟大觀
- ⑱ 東闕圖, 高麗大學校 博物館 소장
- ⑲ 鄭在鏞, 新羅東宮의 苑囿에 對한 考察, 考古美術 138, 139號
- ⑳ 鄭在鏞, 昌德宮 後苑에 對하여, 考古美術 136, 137號
- ㉑ 鄭在鏞, 朝鮮朝別墅造景, 遺蹟의 一例, 韓國造景學會誌, 第2號, 1973